

보도시점 2023. 4. 24.(월) 조간 배포 2023. 4. 21.(금) 15:00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첫 회의 참석

- 4월 17일, IFRS 재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첫 회의 개최
- 올해 6월말 확정 예정인 IFRS S1(일반) & S2(기후)의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등에 대해 논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첫 회의가 열렸으며,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함께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22.12월 구성된 ISSB의 공식 자문기구

SSAF는 작년 12월 IFRS재단에서 설립한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영국·중국·일본 등 13개국 정부 또는 기준제정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美 SEC, EC, GRI 등 주요 기관도 옵저버로 참여한다. 한국은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대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번 SSAF 첫 회의에서는 △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IASB의 회계기준간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SSB는 작년 3월 IFRS S1(일반)과 S2(기후) 초안을 발표하고 7월까지 전세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의견수렴 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재심의(re-deliberation)를 거쳐 6월말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IOSCO(국제증권감독위원회)에서도 ISSB의 최종 기준을 검토한 후 공식 지지(endorse)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SSAF 회의에는 차기 기준제정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최종 기준은 일반 원칙(S1)과 기후 분야(S2)에 관한 것으로, 지속가능성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후 외 다른 E 분야, S 및 G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ISSB에 따르면, 현재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을 차기 기준제정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차기 기준제정 주제가 포함된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SSAF의 첫 회의로서 IFRS재단과 SSAF 회원국 간에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동 MOU에 따르면, IFRS재단과 SSAF 회원국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양질의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AF 회의는 한국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ISSB 및 해외 국가들과 직접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ISSB 기준 제정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차기 기준제정 주제 및 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ISSB 기준과 여러 주요 기준(예: EU의 ESRS) 간 상호운용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SSAF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4차례 개최되며, 차기 회의는 7월중(잠정)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내도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ESG 공시 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개요 >



- **(역할)** IFRS재단이 운영하는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ISSB는 지속가능성 기준 제·개정 시 SSAF의 자문을 거쳐야 함
- **(구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된 13개 주요국 정부 및 기준제정기구
 - * 한국,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인도, 사우디 등
 - (※ 美 SEC, EC, IOSCO, GRI도 옵저버로 참여)
- **(회의)** 연 4회 정기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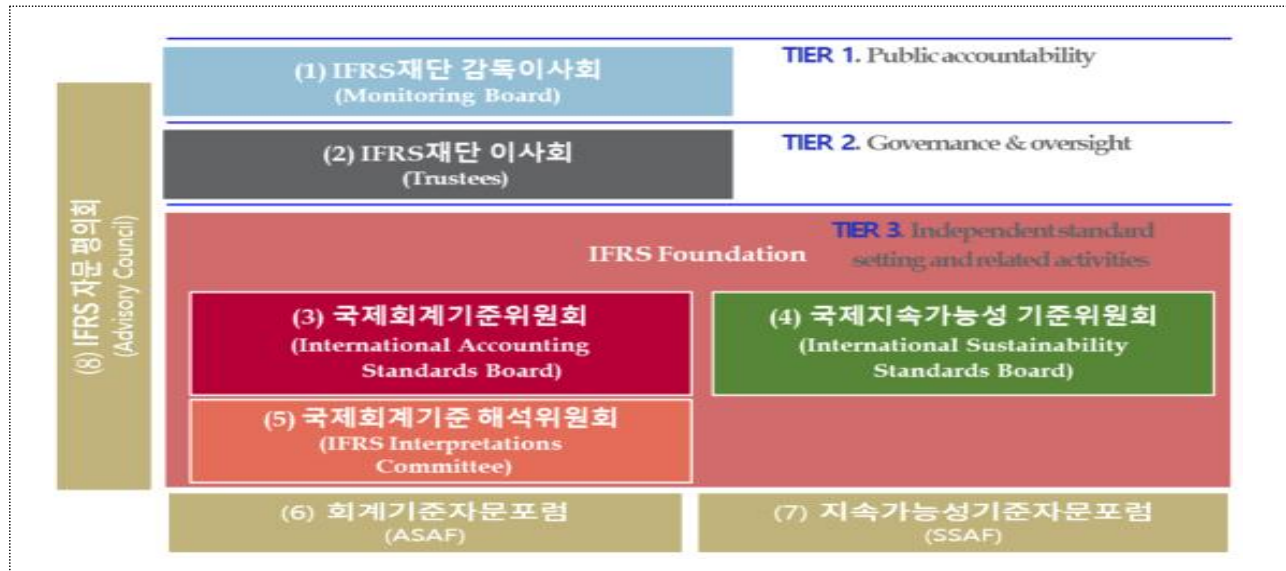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담당자	지속가능성 경영센터장	이웅희 (02-6050-0178)

□ 총 16석(지역할당 10석, 지역무관 6석) 중 13석을 우선 임명

구분	기관
아시아·오세아니아 (3석 + 2석) * 3석은 지역할당, 2석은 지역무관	한국 금융위원회(FSC) 및 한국회계기준원(KAI)
	중국 재무부(MOF)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인도 공인회계사회(ICAI)
	사우디 공인회계사회(SOCPA)
아메리카 (3석 + 1석) * 3석은 지역할당, 1석은 지역무관	라틴아메리카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GLASS)
	캐나다 공인회계사회(CSSB 설립 전 임시기관)
	멕시코 재무보고기준위원회
	브라질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BPS)
유럽 (3석)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SIF)
	영국 재무보고협의회(FRC UK)
아프리카 (1석)	아프리카 회계사연맹(PAFA)
옵저버*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 집행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

* 공식 회원국은 아니나, SSAF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 IFRS재단은 다음과 같은 3개 층위(Three tiers)와, 8개 주요 기구로 구성됨



(1)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 **(기능)**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관리 감독
- **(구성)**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C), 일본, 브라질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IFRS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 **(기능)** IASB, IS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
- **(구성)** 위원장 1명(핀란드), 부위원장 2명(미국, 홍콩), Trustee 위원 19명으로 총 22명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Accounting Standards) 제정 등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2명 총 14명

(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기능)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제정 등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명 총 14명

(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해석서 개발 등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4명 총 15명

(6)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회계기준 관련 자문
- (구성) 12개 국가(지역기구 포함)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7)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기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에 공시기준 관련 자문
- (구성) 12~16개 국가의 대표기관(지역기구 포함)이 회원으로 참여

(8)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mmittee)

-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 (구성) 위원장 1명(미국), 위원 48명 총 49명